

반석인가? 모래인가? (3)

이 정엽 목사
(뉴비전교회/214-534-7141)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누구인가? 그는 참된 기독교인들 사이에 끼어서 기독교적인 외형만 갖추고 사는 비기독교인이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산상 설교의 가르침은 듣기는 좋으나 실천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말씀을 인용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며 실천하지 않는다. 대신에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한다. 예수님의 낮아지시고 먼저 섬기시는 삶을 닮으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높아지고 대접받고 내 잇속만 챙기기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에 열심을 부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들의 칭찬과 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볼 때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대접해 줄 지 모른다. 그의 열심, 봉사, 경건의 모습, 권능 행함과 설득력 있고 많은 청중을 사로잡는 웅변술 등등 어떤 차이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자신의 진정한 속 모습과 수준은 드러난다. 설사 이 땅에서는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견고함을 누리며 무너지지 않고 산다하더라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폭풍우 앞에서는 건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마는 사람이다.

성경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말하고 있다. “지혜롭다”, “어리석다”라는 말은 우리의 본성이나 천성적인 심성이나 우리의 지적인 수준과 학벌을 말한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 태어나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태어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못 배웠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어리석다, 지혜롭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가,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세워야 하는가 마땅히 갈 길을 보여주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고집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길을 자처하며, “지옥에 가봐야 알지!”라고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며 멸망의 길로 가니 어리석은 사람이다.

시편 11:3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라는 질문을 다윗이 하였다.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유럽 공동체가 무너지고, 미국이 무너지고, 텍사스의 터가 무너지면 어떡하겠는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게 굳게 믿고 싶은가? 그러나 그 날은 이미 가까이 오지 않았는가! 만국을 진동시키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인생과 집과 터를 세울 수 있을까? 오직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밖에는 무너지지 않는 터나 집은 없다고 성경은 말한다.

우리의 앞길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과연 가치있는 일인지,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생명의 길인지 우리가 모른다면 불안초조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최후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어떠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난리와 핍박과 환난이 불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인생과 삶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셨다.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가!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 모래 위에 집을 계속해서 짓겠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굳건한 예수님의 반석 위에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겠는가?